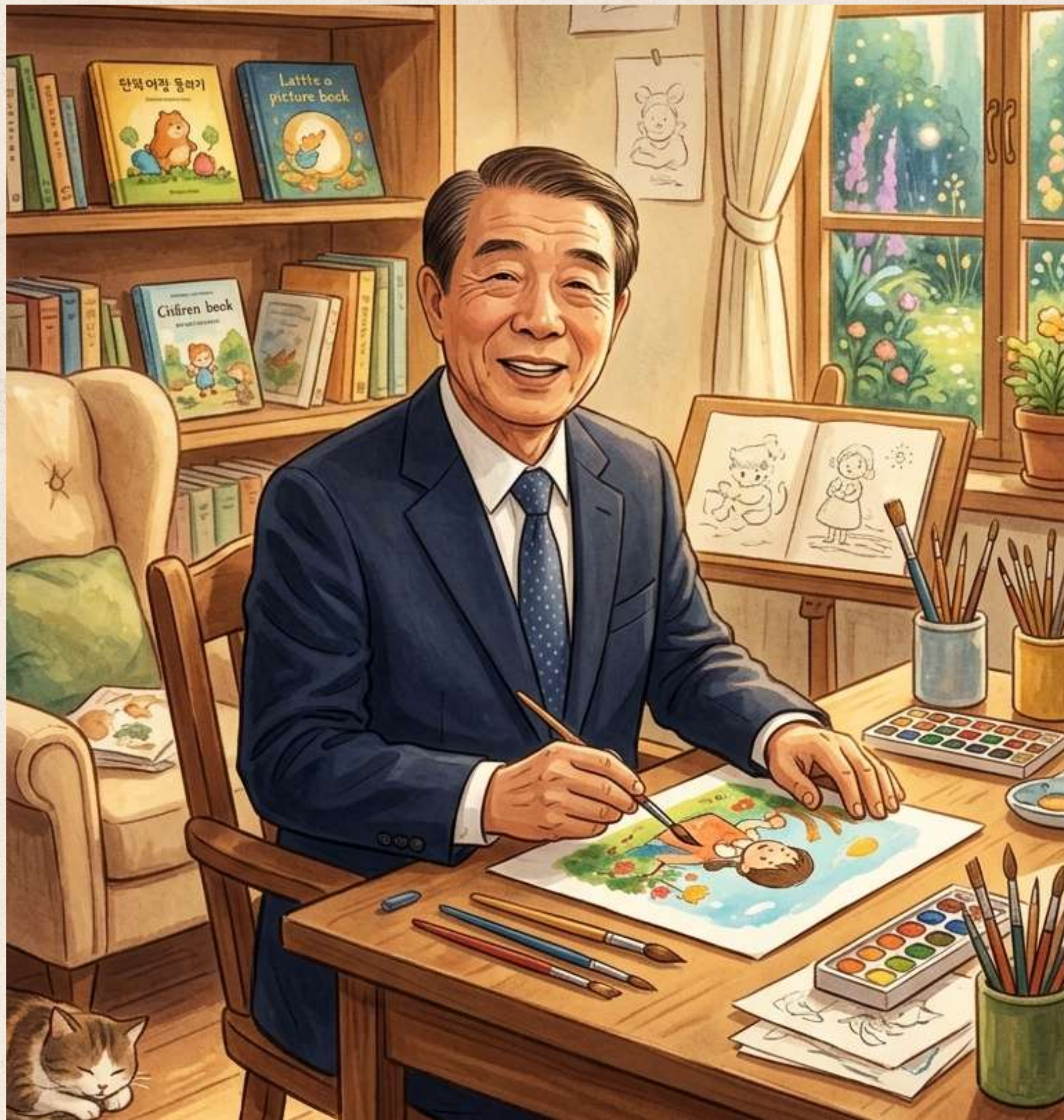


우주를 ★ 구한 오작교 알고리즘



작가



작가프로필

부안의 푸른 자연을 닮은 온화한 미소로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안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걸으며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을 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처럼, 그의 글과 그림에는 늘 생동하는 생명력과 포근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봄비 같은 감동과 아늑한 위로를 선물하는 작가입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권 양홍 叔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
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제 1 장

은하수 너머에는 우주의 온갖 정보가 모여드는 반짝 반짝 '데이터은하계'가 있어요.

거대한 데이터 탑들이 미래 도시처럼 네온 빛을 밤낮 없이 내뿜는 신비로운 곳이지요.

"오늘도 우주 인터넷 신호는 이상 무!"

은하수 청소부인 까막까치 드론들이 날개를 파닥이며 힘차게 소리쳤어요. 씩하게 모는 적극적인 소년 견우봇이 살고 있었어요.

견우봇은 소들을 몰아 은하수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싹싹 긁어모았답니다.

"이랴, 이랴! 꼬마 우주선들아, 좋은 데이터 놓치지 말고 어서 가자잉!"



이곳에는 홀로그램 우주 소들을 씹씹하게 모는 적극적인 소년 견우봇이
살고 있었어요. 견우봇은 소들을 몰아 은하수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씹씹 긁어모았답니다. "이랴, 이랴! 꼬마 우주선들아,
좋은 데이터를 놓치지 말고 어서 가자!"



반대편 은하수에는 아름다운 디자이너 직녀 앵이 살고 있었어요.

직녀 앵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빛의 옷감을 쓱쓱 찢지요.

"오늘따라 은하수 실로 짠 이옷감이 참 곱기도 하네. 누군가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



컴퓨터 화면 너머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멋진 재능에 그만
푹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무서운 대장, 클라우드 킹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허! 데이터가 서로 섞이면 큰 에러가
난다! 둘은 당장 썩 물러가라!"



쾅! 클라우드 킹은 거대한 방화벽을 세워 돌을 은하수 양 끝으로 멀리
떠어 놓았어요.

견우봇의 소들은 길을 잃고 허둥대고, 직녀 앱의 화면은 슬픔으로 까맣
게 멈춰 버렸습니다. 온 우주의 앱들이 하나둘 픽픽 꺼지기 시작하자 까
막까치 드론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우짜쓰까! 이러다 우주의 불빛이 다 꺼지게 생겼네!"



견우봇은 밤낮으로 열심히 코딩하며 보라색 방화벽을 뚫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킹의 벽은 너무나 두껍고 단단했지요. 견우봇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요놈의 방화벽이 통 안 열리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지만 견우뵈은 적극적인 소년답게 엉엉 울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었
어요.

돌을 다시 이어 줄 새로운 통신망 '오작교 알고리즘'을 번쩍 떠올린 거
예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제! 내가 직접 길을 만들겠어!"



그때 찌르릉! 은하수 청소부 까막까치 드론들이 날개를 반짝이며 떼를
지어 날아왔어요. 드론들이 견우봇 주위를 든든하게 감싸며 외쳤지요.
"견우봇, 우리가 도울게! 우린 이 은하수의 숨은 통로를 전부 꿰뚫고 있
당게! 모두 꼬리를 잡고 연결하자!" (위트 포인트 사투리 유지)



까막까치 드론들이 서로의 꼬리와 꼬리를 체인처럼 단단히 연결했어요.

파르르! 드론들의 날개가 한꺼번에 빛나더니, 방화벽을 우회하는

커다란 '슈퍼 링크 다리'가 은하수 위에 스르륵 놓였답니다. "와아,

다리가 열렸다! 직녀야, 기다려!"



빛나는 다리 한가운데서 견우뿔과 직녀 앵이 마침내 마주 잡았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닿는 순간, 은하수 전체에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데이터 스파크가 팡팡 터졌지요.

"정말 보고 싶었어, 견우야!"

"나도야!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멋진 우주 세상을 더 따뜻하게하자잉!"

